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잠언 17:3, 로마서 5:1-11

최정웅 목사님

서론 : 연단의 의미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다. 오늘 읽은 잠언 17:3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한다.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이라는 말이다. 담금질을 한다는 뜻이 있다. 금이나 은을 제련할 때 불 속에 집어넣고 녹이고 나면 다른 잡된 성분을 거르게 된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순금, 순은이 남는다. 예리한 검을 만들 때도, 잘 드는 낫을 만들 때도, 풀무 불을 일으켜서 그 속에 집어넣고, 또 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두들기고 한다. 그 과정을 가리켜 연단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과정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올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가? 축복이 축복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이익만 추구하는 악당들, 사기꾼들, 가짜들이 와서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강탈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와 그 후의 개혁자들,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단 누명을 썼다. 예수님도 이단이었다. 정말 복음 전할 사람만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 붙잡은 사람만 발견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때에는 고난으로 위장한 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그릇을 키워가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족함을 충족시키기도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바뀌어 가신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 절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후예배 전에 RUTC방송 뉴스를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한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전도자, 저런 제자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에 고난, 시련, 단련, 역경을 허락하신다.

요셉은 세계복음화해야 할 사람인데, 수준이 어떤가? 형들 고자질하는 수준이었다. “아빠, 형들이 이런 짓을 했어.” 계속 고자질했다. 나는 요셉과 야곱을 보면 야곱과 좀 가깝다고 생각했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요셉을 말하면 너무 완벽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은 더한 사람이었다. 고자질쟁이였다.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형들의 흠을 아버지께 고발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점점 어렵고 요셉을 점점 미워하지 않겠는가. 물론 정당한 고발을 했으면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이 사람의 수준은 부잣집 막둥이 아들이다. 때때로만 입고 자랐다. 재벌들이 3세, 4세가 되면서 행태를 보니까 왕자, 공주로만 자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기업도 어렵게 하고 그러지 않나. 요셉이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이다. 너무 잘 하는데도 감옥에까지 보낸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억울한 것 같다 싶을 정도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 살릴 총리가 되는 것이다. 민족을 살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다. 그런 연단 없이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전도자요 세계 살릴 일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는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통과하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어려움, 시련은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는 귀한 과정이 될 것이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1. 연단을 통과할 방법

첫 번째는, 연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1)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단 과정에서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서 연단,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다. 이때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잠언 24:10에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8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훈계를 주신다. 잠언 5:23에,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고 했다. 그 훈계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내 아들이.” 그 말이다. 히브리서 12:5-7에 보면,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훈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버린바 된 아들이라고 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파출소에 한 청년이 왔는데, 뭘 잘못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히 앉혀두는 것이다. 이 청년이 자꾸, “나를 좀 때려 주세요. 때려달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때린다. 절대 벌을 주지 않고 놔둔다. 이 아이가 고아였다. 자기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그게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파출소라도 가면 그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기억하라. 고난이 왔을 때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신분에 집중해야 한다.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나의 왕이요, 죄에서 나를 건지신 나의 제사장이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시다. 그리스도를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8:35에,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사실을 참사랑 가족들이 기억하시기 바란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는 말이다.

(2)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단련에 임하라는 것이다. 고난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이다. 잠언 24:16에 보니까,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들어갔다. 그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셉이 노예로 가다가도 망치지 않았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탈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을 찾게 된 것이다. 나의 현장을 찾게 된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

(3) 세 번째로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 속에서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된다. 잠언 19:21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고 했다.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하다. 그것을 고난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22:17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돌지아라.” 잠언 23:12에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잠언 23:19에도 말씀했다.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요셉이 말씀의 흐름을 따

라 기도하다가, 자기가 왜 애굽에 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야 할 것도 알았다. 여기에서 문힐 것이 아니라,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언을 남겼다. 창세기 50:24-25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여지없이 떠나라’고 했다. “그때 나를 피라미드 속에 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400년이 지난 후 출애굽을 할 때 정말 그 후손들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간 것이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길인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2.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응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1)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 단련을 거치고 나니까 놀라운 새 힘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과 새 힘이 내게 생기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복음을 붙잡으니까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 이 힘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참된 소망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잠언 23:17-18은 말씀한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14에도 말씀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소망을 찾아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약 본문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소망은 사실은 복음을, 구원을 붙잡는 소망이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5:8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에 집중하면 소망이 생긴다. 참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다가,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한다.

(2)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인데,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굳어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1:5-7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16:33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8:9-10에서 말씀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너를 대적하여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사도행전 27:24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야 할 곳에 내가 서있을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대담함이 회복되게 된다. 이 축복이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 보면, 놀랍게도 변화가 와 있는 것,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쳐서 호렙산에 갔을 때, 그는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나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할 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대답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9:15-18을 보면, “네가 가는 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겨 놓았다. 칠천 제자가 있다. 새 왕

을 세우고, 아벨므홀라에 가서 네 제자로 엘리사를 세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삼아라.”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있으면, 현장에 가 보면 흑암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현장에 가 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장에 갔더니 제자가 보이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게 된다. 그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치유되는 것이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전도현장에서 여러분이 본 것이 그것 아닌가. 그러면서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와 있는 것이다. 스테반의 환난 때문에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다. 세계로 뻗어나갈 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연단의 결과로 오는 축복이다. 영혼과 마음이 힘을 얻으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현장에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 : 언약의 여정

말씀을 마치려고 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Never give up,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결론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의 세계복음화 사역은 언약을 붙잡는 날 바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 보니까 아니지 않나? 그것은 여정이다. 나그네의 여정이다. 여러분, 잠언 23:26에,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길이 있다는 것이다. ‘네 앞에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인 것이다. Covenant Journey,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8-15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꾀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꾀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빠르게 된다. 욥기 23:10에 답이 나온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을 여호와께서 전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결국 모든 일을 좋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마침내 정금, 순금같이 제련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날까지 우리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나의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정상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 같이 묵상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고, 고개도 많고 언덕도 많고, 산도 있고 강도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그 연단의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일의 주인공, 주역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사, 내 인생 길에 오는 연단들을 반드시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